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I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 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파노)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광고모집

제1667호 2011,6,19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 3, 16 - 18)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 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삼위 일체 대축일

ㄹ 입당송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외아드님과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정녕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4,4ㄱ-6.8-9)

그 무렵 4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 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5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6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7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8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다니3,52.53.54.55.56)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ㄹ 제2독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3,11-13)

11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 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묵시 1,8)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ㄹ 복 음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영성체송

(갈라 4,6)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6/19 8시	이 윤형	윤 광석	윤 기애	이 연경
11시	양 명상	한 광희	한 소은	양 정남
6/26 8시	김 철중	함 봉국	함 경옥	김 미수
11시	이 회양	신 대철	신 춘화	김 혜란

복 사 : 김 현우 & 김 현민 이 다훈 & 이 재영
 봉헌자 : 김성호&이상빈 가족 다음주 : 로철진&신희원 가족
 헌금봉사 : 셋별 Pr 다음주 : 자비의 모후 Pr
 운전봉사 : 정 우충 다음주 : 양 경식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 연령희, 은총의 중계자 Pr, 이요한[장민]
 조래호, 조유리안나 봉헌
 성 정마르꼬회 도움주신분들(감사미사) : 신예레미아[홍원] 봉헌
 신베드로(생미사) : 신예레미아[홍원] 가족봉헌
 바루시아[선영](생미사) : 양리카드로[경식]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이덕재 기일(연미사) : 이안토니오[호원] 가족봉헌
 한복임(연미사) : 한빅토리오[성천] 봉헌
 부모님(연미사) : 양리카드로[경식] 가족봉헌
 최바오로[홍선](연미사) : 최테레사[영애] 봉헌
 정낙모 영혼을 위하여(연미사) : 박스테파노[세복] 봉헌
 이줄리아나[옥](연미사) : 이재웅 가족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강마리아[희석](연미사) : 김요한[종구] 가족봉헌
 연령회에서 봉헌(연미사) : 신마리아, 유아다나시아, 김정숙
 홍신생, 박노길, 오연달, 박기완, 이민열,
 김콘실리아[인애], 고경아, 박만순, 김루시아[정자],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성가

입당 : 영광의 주 성삼위 (성가81)
 봉헌 : 부드러운 주의 손이 (성가439)
 성제 : 주여 임 하소서(성가 151)
 성제 앞에 (성가 178)
 파견 : 찬양하라 (성가 4)



교회 소식

(1) 삼위일체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일체 도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2) 예수성심 성월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묵상하며
 저녁기도 후 예수성심성월(기도서 32P)을 바치도록 합시다.

(3) 주일학교 Camp 소식

- 중고등부 여름캠프 이번주25일(토)-27일(월) 접수마감은 오늘(주일)
- 초등부 1학년부터 교구청무료 캠프 6월29일(수)-7월6일(수)이며
 원서마감은 다음주26일(주일) 까지 주일학교에서 합니다.
- ※ 중고등부 장학선발 원서접수마감이 오늘(주일) 까지 입니다.

(4) 경로잔치 소식

다음주26일(주일)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브롱스, 웨체스터 노인 분 들을
 많이 초대해주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 미동북부지구 울뜨레야 소식

7월4일(월) 뉴저지 103위 성당에서 아침9시부터 지구울뜨레야가 시작
 됩니다. 당일 본당에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꾸르실리스파 가족들은
 아침 9시까지 성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 가톨릭 방송소식

본당탐방 (성 남요한 성당편) 가톨릭T,V (케이블비전, 타임워너케이블
 TKC) 방송이 6월26일(주일) 오후5시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7) 본당 야유회 소식

7월10일(주일) 본당야유회가 11시미사후 F,D,R PARK(파킹장 4CS)
 에서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
 가지마시고 그날은 모든 구역원이 참석하여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협조합시다.

(8) 본당 모임

* 연령회 모임이 오늘(주일) 11시미사후(1시부터) 성당에서 있습니다.

* 울뜨레야 회합이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미동북부 가톨릭성서모임 월성경 강좌 안내

일 시 : 2011년 6월 20일 오후 8시-9시30분

장 소 : 마돈나 성당

제 목 : 탈출기(탈출=>광야=>계약)

강 사 : 남해근 신부님

문 의 : 김 마리릿다 수녀(201-937-6622)

* 한아름상품권을 구입해서사용(5%는빈센트회에돌아옴) 하는 것은
우리집 식탁에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사무실이나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6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7월)은 뉴저지 구역입니다.

◆ 성체조배 [한] 聖體朝拜 [라] Visitatio SSmi Sacramenti [영] Visit to the Blessed Sacrament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을 바치는 신심행위.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가끔 성당에 와서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성체조배를
함으로써 성체에 현존하는 그리스도께 흠숭(欽崇)과 사랑을 표현하고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304.00

교육헌금 : \$3,822.00

교 무 금 : \$ 2,850.00

양부용(완납) 남혁우(3-6) 황인서(4-6) 황육규(5-6)

강순기(5-9) 홍기동(5-8) 김옥연(6-7) 김형남(5-8)

최연월(3-5) 박경순(6) 김중구(4-6) 민병집(6-10)

김부균(완납) 이상식(6) 김관희(6) 이창섭(1-6)

이강민(4-6) 손경섭(5-6) 최숙자(6) 권경순(6-8)

김동성(5-7) 지창욱(6-7)

Stewardship Appeal : \$50.00

누계 : \$ 6,855.00

손경섭

종말은 오는가?

캠핑 목사는 지난 5월 21일이 심판의 날이 된다고 예언했었다. 즉 이 세상
의 종말이 그날 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무일 도 없이 지나갔다.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은 종종 있는 말이다. 몇 년전에도 10월 28일에 종
말이 온다고 떠들썩했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믿지 않지만, 그
래도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럴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 언젠가는 지구가 생
물이 생존할수 없는, 우주에 떠도는 다른 별들처럼 죽은 지구가 되어버린
다고 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의 심
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를 그렇게 죽여버릴것만 같기 때문이다.
성경을 봐도 하느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창세기 9:22)고 말씀하셨다. 사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른다 고해서 온 세상을 한꺼번에 멸하시겠는가? 그런데
요즘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면 정말 종말이 머지않
아 올 것 같은 생각을 하게된다. 예전에 없던 험한 자연현상을 보기 때문
이다. 기후의 변화, 자연재해 등등...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
해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예전에 내가 어려서 한국에서 살 때에는 겨
울이면 삼한사온의 날씨로 인해 추운 날 위로를 받았다. 3일 춥고나면 4일
동안은 덜 춥겠지 하면서...정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삼한사온
의 기후는 옛말이 되어버렸다. 한없이 춥기도 하고, 전디기 힘들 정도로 덥
기도 하는가 하면 더운 지방에 난데없이 눈이 내리기도 한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기후변화, 자연재해는 지구 온난화, 온존 층의 파괴 등등으
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오고있는지 알고 보면 당장 종말이 온다는 말보다 훨씬 더 불안을 초
래한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면서 이미 바닷물이 상승했고, 언젠가는
땅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말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종말은 하
느님께서 내리시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불러오는, 인
간이 지구를 종말로 밀고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물론 지구촌 곳곳
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
하고 그날 10분간 불끄기 운동을 하는가 하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한
행사로서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한시간 동안 불을 끄는 운동을
벌이는데 이 운동에 동참하는 나라는 120개국이나 되고, 아울러서 6000도
시가 참가한다고 한다. 지난번에도 불을 꺼서 캄캄해진 타임스퀘어를 신문
에서 보도했었다. 예전에는 전기값이 무서워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
었는데 이제는 전기값 보다도 지구를 조금이라도 덜 덥게 하기 위해서 전
기를 아껴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
씀하셨던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전기도 덜 쓰고, 쓰레기
도 덜 버리고, 자동차도 덜 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 몽은